



대학, 교수와 학생의 자화상

권영준 | 안동대 법학과 교수

사람은 지구 속로 태어나서 세계 속에서 살다가 우주 밖으로 사라진다.

사람은 교육을 통하여 자연적 본능적 삶의 세계에서 정신적 문화적 삶의 세계로 점차적으로 넓혀 나간다.

학생들은 교육 목표와 교육과정을 통하여 끊임 없이 새로운 세계를 만나면서 삶의 세계를 확대한다. 이 때 학생들과 새로운 세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교육자이다. 교육자가 학생들을 안내하고자 하는 그 세계는 진실과 착함과 아름다움이 구현되어 나타나는 세계이고 나아가 자유와 평등과 평화의 세계이다.

대학은 중세 대학의 자치의 정신, 근대 대학의 연구의 자유, 현대 대학의 사회에 대한 책임, 즉 자유와 진리와 정의를 이념으로 하는 지성의 공동체로서 파괴되어 가는 자연 환경에 대해 바른 판단을 내려주어야 하고 무너져 가는 사회 질서에 대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하며 거칠어져 가는 인간 사고에 대해 끊임없이 광명의 불빛과 양심의 소리를 들려 주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창출해 내는 대학을 창조적 사유의 센터 또는 독립적 사상의 센터라고 말하기도 하고, 모든 신들의 투기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가 보다.

교수와 학생의 단일 사회로 출발한 대학은 지식을 획득하고 지식을 전수하고 지식을 응용함으로써 다른 형태의 인간 사회와 구별되는 하나의 특수 사회이다.

퍼킨스(James A. Perkins)는 이론적이며 체계적인 지식을 대학의 독특한 필요불가결의 요소로 보고 지식의 획득을 대학의 연구 사명으로, 지식의 전수를 대학의 교수 사명으로, 그리고 지식의 응용을 대학의 봉사 사명으로 지식의 세 가지 국면을 나누어 보았다.

커어(Chark Kerr)는 그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멀티버시티(multiversity)가 학부 교육을 위해서는 영국 대학을, 대학원 교육을 위해서는 독일 대학을, 그리고 사회봉사 교육을 위해서는 미국 대학을 모형으로 상정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이미 대학의 3대 기능으로 교수와 연구와 봉사를 지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오늘날 대학은 교육과 연구와 봉사의 세 가지 기능을 강조하고 있으나 영국의 대학은 신사도를 강조하고 인격의 도야, 즉 교육의 기능을 중시하고, 독일의 대학은 연구의 기능을 중시하며, 미국의 대학은 실용주의적 학문의 응용과 사회 봉사의 기능을 보다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이 교수 기능만 강조한다면 학원이 되고, 연구 기능만 강조한다

“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은 좀더 바람직한 세계에로의 행진에서 동반자의 관계에 있다.

교수와 학생이 진정한 동반자로서 만남과 관계가 이루어질 때
정말 살아 있는 현실 개선의 참된 지식이 잉태하며, 바른 사회를 이끄는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생산해 낸다.

”

면 연구소가 되며, 봉사 기능만 강조한다면 복지 센터로 전락된다.

지성의 공동체인 대학은 교수와 학생의 만남의 장(場)을 마련해 준다.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의 만남은 통상의 의례적 만남이 아니라 특수한 창조적 만남이다. 교수와 학생의 만남이 창조적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교수와 학생에게 일정한 능력과 자세가 전제된다.

교수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진리와 착함과 아름다움이 구현되는 가치 세계에 대한 전망과 현실 세계에 대한 냉철한 이해, 즉 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다. 그리고 그 전망과 이해를 학생들에게 충실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욕 있는 성실한 자세, 즉 교육적 열의가 필요하다. 대학 교수는 학자이기도 하고, 선생이기도 하여야 하며, 스칼라(scholar)와 티처(teacher)의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교수가 전문적 지식을 갖추었으나 교육적 열의가 적다면 그 교수는 학자에 머물게 되고, 반면에 교수가 교육적 열의는 대단하지만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그 교수는 선생에 머물게 된다. 훌륭한 학자가 곧바로 훌륭한 교수라고는 할 수 없으며 또 훌륭한 선생이 곧바로 훌륭한 교수라고도 할 수 없다. 학자로서의 능력이나 선생으로서의 능력은 훌륭한 교수가 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조건일 따름이다.

그러나 교수가 이러한 능력과 자세를 갖추고 있더라도 학생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자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역시 교수와 학생의 창조적 만남은 어렵게 된다.

학생의 사고가 경직되어 있어서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가치 세계를 절대적인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거나, 학생의 관심과 흥미와 느낌이 전혀 없어서 더 나은 가치 세계를 받아들일 것을 거부하거나 부정한다면 교수의 능력과 자세는 그 앞에서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여서는 수동적 힘은 새로운 세계를 펼쳐 보려는 능동적 힘에 못지 않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능력으로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귀중한 능력이다. 그리고 학생들은 수용의 능력과 아울러 받아들여야 할 성의, 즉 교육적 성의를 가진 자세가 필요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대학 교육은 교수와 학생이 위에서 말한 능력과 자세를 가지고 만났을 때 가장 훌륭한 창조적 만남이 되며, 이 만남으로부터 가장 훌륭한 교육적 성과가 생산된다.

교수와 학생의 만남은 삶의 지평을 확대하고 우주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의 형성과 변화를 초래하는 만남이다. 이 만남에 의하여 형성되는 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일상적 관계가 아니라 특수한 관계이다. 이러한 만남과 관계를 통하여 교류되는 것은 언어를 통한 정신이고 이 정신은 학생들의 삶의 세

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오늘날 사회는 급속도로 세계화, 정보화 과정을 거치고 있고 대학은 대중화되면서 교수와 학생의 관계가 전과 다른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토론과 협조를 통하여 현실 세계를 이상 세계로 이끌고자 하는 공통 목적을 가지는 관계인 한 그 관계는 아름답고 고귀한 관계로서 빛과 향기를 잃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고 생각한다.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다른 사람과 사람의 관계와 같지만, 특히 대학에서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가치관은 그 이후 형성되는 모든 관계의 성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학 교수와 대학생간의 관계는 성숙한 정신과 새로운 정신과의 관계이다. 두 정신의 관계 속에서 정신은 서로 물리적으로 교류되고 화학적으로 변화한다. 우리는 이 정신적 관계가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기를 기대한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의 훌륭한 정신을 말할 때 로고스(logos)적인 것과 파토스(pathos)적인 것, 그리고 에토스(ethos)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라고 한다.

특히 학생들이 교수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전문 지식과 논리적 사유를 가진 이성적 가치와 사랑과 이해의 따뜻한 인간미를 나타내는 감성적 가치, 그리고 정의감과 양심으로 나타나는 윤리적 가치이다. 교수가 이러한 가치를 더욱 풍부히 가지고 있을 때 학생들은 그 교수를 존경하고 신뢰한다.

전문 지식인이 현실의 불의를 목격하고 침묵을

지킬 때 학생들은 그를 존경할 수 없다.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따뜻한 인간미가 없을 때 학생들은 그를 따를 수 없다. 사랑과 따스함이 있지만 학문 분야의 전문 지식이 없을 때 학생들은 그를 신뢰할 수 없다. 존경과 사랑과 신뢰가 없을 때 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창조적, 생산적이지 못하고 교육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교수가 학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간 정신이다.

이 정신에 의해 나타나는 더 높은 가치 세계로의 함창이 교수와 학생의 만남과 관계의 목적이다. 교수는 수업의 현장에서 학생들과의 진정한 만남과 신뢰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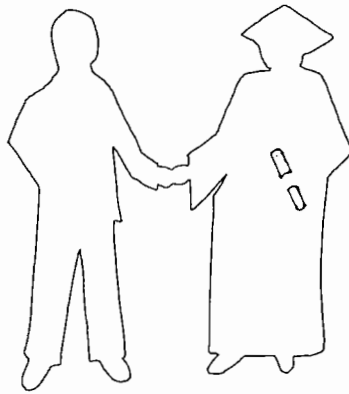
우리는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의 만남이 창조적 만남이어야 하고, 그러한 만남에 의한 관계는 정신적 교류이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 정보화의 거창한 흐름과 구호 아래 물질 가치가 모든 가치를 대체해 가는 오늘날의 가치의 평준화 현상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상품 가치, 화폐 가치가 확고하게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반적인 현실에서 지식은 돈벌기 위한 수단으로, 대학 교육은 더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여 교수는 얼마간의 지식을 가르치고 학점을 인정하는 기계로, 대학은 학점을 이수하여 졸업하는 과정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

21세기 초반기의 역사적, 시대적 세계관 앞에서 물질 가치 절대화의 사회적 현실이라는 풍조 앞에



서 대학 교수는 더욱더 외롭고 초라하고 왜소하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대학 교수는 인간적 가치니, 정신적 가치니 하는 역사적 뒷안길의 그림자를 붙잡고 다니면서 오직 상품적 가치가 있는 몇 가지 지식을 판매하는 성냥팔이 소녀에 지나지 않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조할 때가 있다. 이것이 역사의 진보이며 세계의 발전인가 혼자 웃어 본다.

그러나 교수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도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 나아가 인류에 대해 자신의 지식과 신념에 대한 신뢰를 끊임 없이 회복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그의 창조적 교육 활동이 가능해지고 학생들은 과거에 묶이지 않고 현재에 머무르지 않으며 미래를 향해 더 높고 넓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은 좀더 바람직한 세계로의 행진에서 동반자의 관계에 있다. 교수는 좀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은 좀더 많은 정열과 패기를 가지고 있다. 교수와 학생이 진정한 동반자로서 만남과 관계가 이루어질 때 정말 살아 있는 현실 개선의 참된 지식이 잉태하며 바른 사회를 이끄는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생산해 낸다.

사회가 아무리 병들고 괴롭더라도 의젓하고 몇 몇하게,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한 생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터득한다. 그 누가 말했던가. 세상에서 대학보다 더 아름다운 곳은 없다고. 그것은 대학을 유지하는 교수와 학생, 즉 대학인의 끝없는 진리의

추구에 대한 고민과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끈질긴 노력, 그리고 자연과 인간과 사회를 보다 자연답고, 보다 인간답고, 보다 사람답게 만들기 위한 몸부림이 바로 그곳 대학에 있기 때문이다.

교수와 학생의 이러한 사랑과 존경의 상호작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동일과 비동일의 동일 (Identit der Identit und der Nichtidentit)이 되며 결합과 비결합의 결합 (Verbindung der Verbindung und der Nichtverbindung)이 이루어져 존경받는 현명한 교수와 사랑 받는 성실한 학생이 공존할 수 있는 자유와 평등의 동일이요, 결합인 평화로운 대학 사회가 건설될 것으로 믿는 마음 간절하다. **■**

권영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안동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사회과학대학장 겸 행정경영대학원장을 역임하였다. 독일 괴팅겐대학 객원교수를 거쳐 한국민사법학회와 한국재산법학회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 『민법총칙』, 『결합제조물의 민사책임』 등이 있다.